2024년 5월 24일 설교자 회의

본문 : 사도행전 1장 3-11절
제목 : 내 증인이 되리라
대지 : 1.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음과, 하나님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의심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기도하고, 함께 식사도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활 하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40일간 복습과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 까지' 예루살렘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말(눅3:16)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올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함께 지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세상적인 일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대답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칼빈의 주석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하나하나가 다 잘못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회복하다'는 동사는 여전히 그들이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나라를 기대하고 있음을,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 민족적 나라를 기대하고 있음을, '이 때'라는 말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붙잡힌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화됨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부분을 더 신경쓰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던 나라의 개념과는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 갈 하나님나라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증인들에 의해 전파되고 확장되어 갑니다.

아직은 미숙했던, 예수님과 함께하고 부활을 보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속하였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받아 드디어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참고 : NICNT사도행전, BST사도행전, HOW사도행전

본문 : 사도행전 9장 1-9절
제목 : 묶던 자에서, 묶인 자로
대지 : 1.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울
2. 그리스도께 묶인 사울

1

사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묶어넘기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8장3절을 보면 그는 각집을 찾아 다니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묶어 옥에 넘겼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내에서의 박해활동의 결과가 그의 기준에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신하였고, 1절의 말씀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점점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증오의 정도가 점점더 강력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했고, 다메섹에 도달했을 무렵 그의 가치관과 믿음, 그리고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과 함께 누군가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름을 반복해서 부름은 친밀감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사울을 빛과 함께 자신을 부르시는 이가 신적 존재임을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안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하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된것입니다.

2

바울은 그 빛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눈을 떴으나 감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집을 돌아다니던 모습과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위풍당당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한치 앞도 걸어갈 수 없는 위축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결박하려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결박당했습니다. 눈이 안보여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어 누군가를 의지해야만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눈이 뜨인 후에도 예수님께 매여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바울 사도는 이전의 유익으로 여기던 모든 것이 해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 외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빌3:7-8)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예수님께 매여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참고: HOW사도행전, 틴데일 사도행전, NICNT사도행전

본문 : 사도행전 15장 1-11절
제목 : 구원에 대하여
대지 : 1. 모세 율법과 할례
2. 은혜로 받는 구원

1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준수를 요구하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의 약속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안으로 온다고 해도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할례로부터 자유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필요하지만 할례까지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다가 안디옥으로 내려와 이방신자에게 믿음과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지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은 이방인들을, 나아가 안디옥 교회를 불안과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격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2절에 다툼을 뜻하는 스타세오스는 민란으로도 번역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심각한 분열을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와 함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 만의 문제가 아닌 초대교회 전체에 반드시 다루어져야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2

바울과 바나바는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하신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이 할례와 모세율법임을 알기에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을 포함해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모두 모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결정했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몇 년전 발생한 고넬료 회심사건을 언급하며 자신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끗케 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준수가 조건이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11절의 베드로의 말처럼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말은 이방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율법의 준수와 할례가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문장 :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참고 : 틴데일 사도행전, BST사도행전, HOW사도행전

본문 : 사도행전 20장 17-35절
제목 : 남겨진 자들에게
대지 : 1. 그리스도를 위하여
2. 떠나는 자의 권면

1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는 설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며 마지막으로 교회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이 모인자리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합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러왔던 것 처럼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음모에서 오는 시련 중에서도 주를 섬겨왔음을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위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눈물은 자신이 전도한 개종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시험, 시련은 바울이 겪은 모든 박해를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박해들로 위험에 자주 처했지만, 주님 앞에서 묵묵히 사명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었고, 이것은 자신의 목숨 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2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임박한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날 것인데, 이것은 성령에 의해 강제된 여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걸음이 하나님에 이끄심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순종해야했고, 순종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앞에 있는 이들이 자신을 다시 못볼 것임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떠납니다. 하지만 장로들과 에베소교인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닥칠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노리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교회를 파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은 고린고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린도교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들을 용납한 고린도교회의 이야기처럼 에베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걱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유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어그러진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꾀려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바울은 경고합니다. 바울이 3년간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깨어있어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로부터 깨어있기위해 어떻게 해야합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부탁하였고, 그들은 은혜의 말씀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바울의 시대보다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믿음으로 바로서지 못한 영혼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꾀어냅니다. 또한 수많은 쾌락적인 문화들은 우리를 그것들에 중독되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합니다. 은혜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우리를 노리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
참고 : 틴데일 사도행전, NICNT사도행전

본문 : 사도행전 28장 23-31절
제목 :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대지 : 1. 계속되는 전파
2.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바울은 긴여정 끝에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도착해 바울은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된 이유를 설명한 바울에게 유대지도자들은 우리는 너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며 오히려 박해받는 그리스도교의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듣고자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들은 모임을 위해 적당한 날을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나라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율법과 선지서들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전체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대다수는 납득하지 못한것입니다. 결국 대다수의 유대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구원의 주님이심을 받지 못한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들을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들은 들을 귀와 볼 눈이 있음에도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며 애써 거부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결코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로 더욱 전해집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셋집에 구금된 상태였음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동의 자유는 없었지만,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거침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제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 나갈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기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잘 알아야합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배워야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하러 나갈때, 대부분의 경우 배척받고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예비된 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받으며 시작된 하나님나라의 전파는 마지막장인 28장에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비록 가택 연금 중이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지만, 바울의 사역은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참고 : 틴데일 사도행전, NICNT 사도행전